

부-모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김 현 주 (Kim, Hyun-Ju) \*

손 정 희 (Son, Jung-Hee) \*\*

(E-mail :clairhy@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09년 1 월 15 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 월 19 일

게재확정일 : 2009년 2 월 21 일

- 
- \* 학위취득대학 : 충남대학교 교육학 박사수료  
현직: 대전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충북도립대 강사
- \*\* 학위취득대학 : 충남대학교 교육학 박사수료  
현직: 목원대학교 강사

# 부-모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 및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초·중학생 217명과 그 학생들의 부모 434명(부 217명, 모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 하위변인 중 불안 요소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공격요소와 상관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일치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차이검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일치한 경우가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다.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부모교육, 문제행동, 의사소통

## I. 서론

연일 마스크를 통해 보도되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또한 갈수록 그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과 유사한 정도의 흉포화·전문화 경향을 보이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2006년 4월~7월 전국의 초·중·고교생과 비행청소년 등 2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들은 성적이 올랐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반면(35.85%)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사이가 좋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다(26.9%). 또한 가족 간 평균 대화 시간은 비행청소년의 17.9%가 '대화가 전혀 없다'고 답해 일반학생 4.7%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비행 청소년은 부모와 가정의 지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와 가정과 관련된 변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까지 부모 자녀간의 대화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상미(2000)의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권미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더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 자녀 간 대화시간이 많고, 대화의 화제가 다양하며 화제가 서로 일치하고 의견충돌이 적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정명희, 1988).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며(김양숙, 1995) 부모-자녀 간의 대화가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문제행동과 비행이 적게 나타났다(김오남, 1994). Alexander(1973)는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서로의 강화 능력이 부족하고 쌍방적인 대화가 아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대화의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족은 지지적인 의사소통보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혼동된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서, 인지, 문제행동, 사회적응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단순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연구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나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사소통 유형 일치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부모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부와 모의 양육태도 일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부와 모,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oe(1972)에 의하면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모순이 양

육실제에 있어서 부모간의 불일치라 하면서 부모의 행동이 불일치하면 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갈등과 좌절, 욕구불만,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 받기 쉽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McCord(1961)등은 부모의 불일치가 온정의 결핍보다도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며 부모 사이의 불일치와 범죄율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Baumrind(1991)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거나 자녀를 지나치게 거칠게 다루는 부모,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모,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해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들은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Lindsey와 Mize(2001)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자녀를 통제하는데 있어서의 유사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Hart, DeWolf, Wozniak와 Burts(1992)는 부모 간 훈육태도 일치여부에 따라 유아의 놀이행동과 또래지위에 차이가 나타나며 훈육태도가 일치할수록 유아의 놀이행동이 긍정적이고 또래관계에게 더 긍정적으로 수용된다고 하였다(배문주, 2005 재인용). 최경숙(1990)은 양육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부모에게 양육된 자녀들은 성격발달과 사회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 외의 많은 연구들이 부와 모의 양육태도 일치가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의 양육태도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준다(김미진, 1997; 임은실, 2003; 이강옥, 1994; 최미향, 2003). 이처럼 부부간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일치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합의점이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를 대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일치되는 자녀양육의 가치관은 자녀로 하여금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양

육방식이나 자신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 대화유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는 부모와 자녀가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공동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유형 지각의 일치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의사소통 유형 뿐 아니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일치,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 자녀에게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연구가 단순히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에 임하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대화를 높여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이끌고, 민감한 시기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의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관련이 있는가?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가?

셋째,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은 관련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초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5학년과 한창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과 대전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총 310명의 남녀 학생과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답과 부모의 의사소통을 동시에 검사하지 않은 93부를 제외하고 총 217명(남학생 115명, 여학생 102명)의 학생과 그들의 부모 434명(부 217명, 모 217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학생N=217, 부모N=434)

요인	남자(%)	여자(%)	전체(%)	부	모	전체
초5	80(69.6)	64(62.7)	144(66.4)	144	144	288
중2	35(30.4)	38(37.3)	73(33.6)	73	73	146
합계	115	102	217	217	217	434

### 2. 측정도구

#### 1)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국내에서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부모를 위한 자녀

부-모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321

와의 의사소통, 자녀를 위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problematic communication) 유형의 각각 10문항을 포함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5점 범위에서 반응하게 되어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이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다. 문제형 의사소통의 형태로는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 부정적인 발언이나 비판, 이중구속(double-bind)<sup>1)</sup>메시지 및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 등이 있다.

<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문항예시

요인	문항예시
자녀와의 대화	개방형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마음 놓고 내 아이에게 애정을 표시한다.</li> <li>• 나는 내 아이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 한다.</li> </ul>
	문제형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li> <li>•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못하도록 한다.</li> </ul>
부모와의 대화	개방형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을 늘 귀담아 들어준다.</li> <li>• 나는 내 느낌을 아버지(어머니)께 솔직하게 털어놓는다.</li> </ul>
	문제형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li> <li>• 나는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아버지(어머니)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li> </ul>

1) 부모-자녀 간 이중구속(double-bind)메시지는 빈번히 사용되는 문제형 의사소통방식으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매일 늦게 들어오는 자녀에게 어머니는 화가나서 “당장 나가라. 너 같은 것 키우지 않겠다”고 호통을 친다. 이때 만약 자녀가 바깥으로 나가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반항한다”고 야단치고, 나가지 않으면 “엄마 말이 말 같지도 않느냐?”라고 야단을 친다. 자녀가 “나가란 소리냐, 나가지 말라는 소리냐”라고 되물으면 어른말에 대꾸한다고 화를 낸다(유순덕, 1987).

본 척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설문지의 문항 예시는 위와 같다. 연구에 사용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척도별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alpha$	
			부	모
개방형 의사소통	10	1, 3, 5, 7, 9, 11, 13, 15, 17, 19	.884	.830
문제형 의사소통	10	2, 4, 6, 8, 10, 12, 14, 16, 18, 20	.855	.756
			.887	.877
전체	20		.935	

<표 3>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의 신뢰도 계수  $\alpha=.887$ 이고,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의 신뢰도 계수  $\alpha=.877$ 이었다.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신뢰도 계수는 .756 ~ .884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전체적인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alpha=.935$ 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2) 청소년의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를 한미현(1996)이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척도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주로 보이는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5개 영역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총 문항수는 40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이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부적응적 행동으로,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등 다음과 같은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한미현, 1996).

과잉행동은 주의가 산만하거나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여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이, 보통 수준 이상의 과도한 활동이나 행동특성을 의미한다. 불안 행동은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이 예민하여 감정이나 기분이 자주 바뀌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나타내고 위축 행동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움츠려 드는 행동이다. 공격 행동은 남을 잘 때리거나 동·식물을 거칠게 다루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파괴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의미하고 미성숙 행동은 자기보다 어린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어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나이에 비해 어린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5가지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4> 문제행동 검사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alpha$
과잉행동	8	1~8	.707
불안행동	8	9~16	.843
위축행동	8	17~24	.743
공격행동	8	25~32	.789
미성숙행동	8	33~40	.670
전체	40	1~40	.911

청소년의 문제행동 검사 하위요인의 신뢰도계수  $\alpha = .670 \sim .843$ 의 범위에 있었다. 문제행동 검사 전체의 신뢰도계수  $\alpha = .911$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해당 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루어졌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응답은 약 40분정도가 소요되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연구에 대한 안내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모님께 보내서 작성하게 하고 학생들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들 중에서 불성실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대상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변인별 신뢰도를 구하고 기초통계치로 빈도분석 실시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했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하위변인에 관한 상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하위변인의 상관관계

구 분	과잉	불안	위축	공격	미성숙	문제행동 전체
父 개방형 의사소통	-.20**	-.37**	-.33**	-.32**	-.29**	-.40**
父 문제형 의사소통	.43**	.52**	.46**	.45**	.49**	.61**
母 개방형 의사소통	-.11	-.22**	-.27**	-.36**	-.21**	-.31**
母 문제형 의사소통	.39**	.41**	.39**	.45**	.43**	.53**

\*\*  $p < 0.01$

먼저 문제행동 전체를 보면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었다( $r=.61$ ). 자녀의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인 과잉( $r=.43$ ), 불안( $r=.52$ ), 위축( $r=.46$ ), 공격( $r=.45$ ), 미성숙( $r=.49$ )과도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모두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문제행동 전체와 가장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었다( $r=-.40$ ).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가장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은 불안이며 아버지의 문제형의사소통과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문제행동 하위변인 또한 불안이었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개방형의사소통과 가장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 자녀의 문제행동 하위변인은 공격이었고, 어머니의 문제형의사소통과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자녀의 문제행동 하위변인 또한 공격이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의 하위변인 중 불안요소와 관련이

높은 것은 아버지와의 대화이며 공격행동과 상관이 높은 것은 어머니의 의사소통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늘어남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많이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이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을 점수의 분포를 이용하여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구분하였다. 상, 중, 하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차이검증

요인	수준	평균(표준편차)	F	p	Duncan		
					A	B	C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	상	73.71(13.68)	34.11	.000	○		
	중	78.95(14.56)				○	
	하	93.40(15.77)					○
	합계	81.67(16.7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상	74.79(16.51)	24.29	.000	○		
	중	78.97(13.26)				○	
	하	91.61(15.36)					○
	합계	81.66(16.75)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F=34.11$ ,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F=24.29$ 로  $p < .001$ 의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은 Scheffe보다는 민감한 Duncan을 적용한 결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상, 중, 하 집단 모두 자녀의 문제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상, 중 집단은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하 집단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

우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개방형인 개방형일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문제형인 문제형일치의 2가지 일치형과 아버지는 개방형이고 어머니는 문제형인 父개방 母문제형, 아버지는 문제형이고 어머니는 개방형인 父문제 母개방형의 2가지 불일치형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일치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7>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응답자 수

	남자(%)	여자(%)	합계(%)
개방형일치	88(76.5)	79(77.5)	167(77.0)
문제형일치	11(9.6)	10(9.8)	21(9.7)
父개방母문제	6(5.2)	5(4.9)	11(5.1)
父문제母개방	10(8.7)	8(7.8)	18(8.3)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은 개방형일치가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고 문제형 일치는 9.7%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개방형이고 어머니는 문제형인 유형은 5.1%이며 아버지 문제형 어머니 개방형인 유형은 8.3%이었다.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

부모 일치유형	평균(표준편차)	N	F	p	Duncan	
					A	B
개방형일치	77.34(14.11)	167	21.165	.000	○	
문제형일치	97.29(16.36)	21				○
父개방母문제	90.91(16.46)	11				○
父문제母개방	97.89(18.15)	18				○
합계	81.66(16.75)	217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은  $F=21.165$ 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후검증으로 Duncan을 선택한 결과 부모가 모두 개방형의사소통으로 일치한 집단이 문제형 일치나 의사소통 불일치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개방형의사소통 유형으로 일치한 경우가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

#### 1)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아버지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이 모두 개방형인 개방형일치, 아버지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이 모두 문제형인 문제형일치의 2가지 일치형과 아버지는 개방형으로 지각하고 자녀는 문제형으로 지각하는 父개방子문제,

아버지는 문제형으로 지각하고 자녀는 개방형으로 지각하는 父문제子개방의 2가지 불일치형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 9> 학년에 따른 父-子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

父子 일치유형	초5	중2	전체	$\chi^2$	p
개방형일치	119(82.6)	49(67.1)	168(77.4)	10.232	.017
문제형일치	2(1.4)	3(4.1)	5(2.3)		
父개방 子문제	21(14.6)	15(20.5)	36(16.6)		
父문제 子개방	2(1.4)	6(8.2)	8(3.7)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에 따른 차이는  $\chi^2=10.232$ 로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간 개방형 일치는 초5학년의 경우 82.6%, 중2의 경우 67.1%로 초등학생의 개방형 일치 유형이 높았다. 문제형 일치는 초5의 경우 1.4%, 중2는 4.1%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문제형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높았다. 아버지는 개방형으로 지각하고 자녀는 문제형으로 인식하는 父개방 子문제형의 불일치 유형은 초5가 14.6%, 중2가 20.5%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소통을 문제형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개방형으로 인식하는 父문제 子개방형의 불일치유형은 초5 1.4%, 중2 8.2%이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아버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학년에 따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일치유형도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개방형일치, 문제형일치, 母개방子문제, 母문제子개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년에 따른 母-子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

母子 일치유형	초5	중2	전체	$\chi^2$	p
개방형일치	121(84.0)	59(80.8)	180(82.9)	3.073	.380
문제형일치	3(2.1)	0(0)	3(1.4)		
母개방 子문제	15(10.4)	12(16.4)	27(12.4)		
母문제 子개방	5(3.5)	2(2.7)	7(3.2)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의 일치유형은 학년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 2)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 유형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남자	여자	전체	$\chi^2$	p
父子 일치 유형	개방형일치	92(80.0)	76(74.5)	168(77.4)	5.007	.171
	문제형일치	1(0.9)	4(3.9)	5(2.3)		
	父개방 子문제	20(17.4)	16(15.7)	36(16.6)		
	父문제 子개방	2(1.7)	6(5.9)	8(3.7)		
母子 일치 유형	개방형일치	94(81.7)	86(84.3)	180(82.9)	4.551	.208
	문제형일치	0(0)	3(2.9)	3(1.4)		
	母개방 子문제	17(14.8)	10(9.8)	27(12.4)		
	母문제 子개방	4(3.5)	3(2.9)	7(3.2)		

차이

<표 11>에 따르면 아버지의 경우 남학생은 80%가 개방형 일치유형을 보였고 여학생은 74.5%가 개방형 일치를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남학생이 81.7%, 여학생이 84.3%의 개방형 일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의 일치유형과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 3)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의사소통 일치유형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父-子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父子일치유형	평균(표준편차)	N	F	p	Duncan		
					A	B	C
개방형일치	77.84(14.62)	168	18.522	.000	○		
父문제 子개방	82.13(14.57)	8			○	○	
문제형일치	92.40(14.57)	5				○	○
父개방 子문제	97.92(16.95)	36					○
합계	81.66(16.75)	217					

<표 12>에 보듯이 아버지의 자녀간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000$ ). 4가지 일치유형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Duncan을 적용한 결과 개방형일치의 경우 77.84로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으며 문제형일치와 父개방子문제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父개방子문제의 경우가 97.92로 문제행동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일치유형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母-子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母子일치유형	평균(표준편차)	N	F	p	Duncan	
					A	B
개방형일치	79.23(15.86)	180	9.138	.000	○	
母문제 子개방	85.57(9.14)	7			○	○
母개방 子문제	94.74(17.45)	27			○	○
문제형일치	101.00(12.12)	3				○
합계	81.66(16.75)	217				

<표 13>에 따르면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 ).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문제형일치의 경우 평균 101로 문제행동이 가장 높았으며 개방형일치유형은 평균 79.23으로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및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간의 일치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에 대해 청소년 문제행동 전체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인 것은 아버지의 문제형의사소통이었다.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과 가장 부적의 상관을 나타낸 변인도 아버지의 개방형의사소통이었다. 이것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인식과 과거 많은 연구들이 자녀양육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개방형의사소통과 가장 부적의 상관을

보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은 불안이며, 아버지의 문제형의 의사소통과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문제행동 하위변인 역시 불안이었다. 어머니의 개방형의 의사소통과 가장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하위변인은 공격이었고, 어머니의 문제형의 의사소통과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청소년의 문제행동 하위변인도 공격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대화는 자녀의 문제행동 변인 중 불안요소와 관련이 높으며, 어머니와의 대화는 공격행동과 상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불안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족들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역할과 더불어 자녀들의 행동기준을 세우고 실천하게 하는 감독자·지지자·통제자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아버지와의 원활한 대화는 청소년의 불안과 걱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표현적이고 애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버지보다는 좀 더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어머니와의 원활한 교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을 줄 것이며 어머니와의 정서적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청소년은 외부세계에 대해 과격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보다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수준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 역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서父개방母문제형보다는父문제母개방형의 불일치 유형의 빈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도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가깝지 못함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둘 다 개방형인 의사소통방식을 취할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고 부모의 의사소통이 불일치하는 집단과 문제형으로 일치하는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자녀양육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의 의사소통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쌍방 간의 합치된 올바른 의사소통방식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개방형일치는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일치유형이 높았고, 문제형일치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았다. 아버지는 개방형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문제형으로 인식하는 아버지문제형의 불일치유형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높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소통을 문제형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개방형으로 인식하는 아버지문제형도 중학생이 더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일치유형은 학년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아버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성적 성숙과 함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힘들고, 세대차이를 느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하기 쉽다는 Barnes & Olson(1985)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학년이 높아지고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부모-자녀 간 대화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다시 한 번 자신의 양육방법과 대화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

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인식에 대한 서로 다른 지각 차이는 대화를 하는 중에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에 높은 단절의 벽은 청소년을 비행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검증에서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여학생보다 약간 높은 개방형 일치유형을 보였고,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남학생보다는 높은 개방형 일치유형을 보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맞벌이 가정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부모의 역할과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기보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형화된 역할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이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문제형으로 일치한 경우가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높았으며 개방형으로 일치한 경우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개방형일치로 지각한 경우가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으며 아버지는 개방형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문제형으로 인식한 父개방子문제형이 아버지와 자녀 모두 문제형으로 일치한 경우보다 문제행동이 더 높았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의사소통을 문제형이라 인식하고 있어도 부모 역시 자신의 의사소통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대화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더군

다나 스스로는 자녀와 열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경우는 앞으로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드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의사소통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의 영향과 역할이 중요해졌으므로 이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의 일치된 개방형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과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일치될 때 자녀의 문제행동이 낮아졌다.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관된 의사소통의 일치 중요함과 부모가 느끼는 의사소통방식과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에서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대전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표집이 요구된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는 서구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측정도구이므로 보다 정확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문화와 현실에 맞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바람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실제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에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며 점차 독립을 시도하면서 부모의 권력, 조연에 불만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일반적으로 부모의 기대와 반대로 행동하여 독립을 표현하려고 한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좌절감·소외감·불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일탈적 행위를 유발하여 청소년 문제로 발전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는 서로의 감정과 태도, 신념, 생각, 믿음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이해하는 수단이다. 최근 단순한 가정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청소년 비행문제는 부모-자녀 간 서로 이해를 통한 대화에서 그 최초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고상미, 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숙, 2007,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자기통제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1997,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치여부와 자녀의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김정희,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상담학연구, 5(3). 1-25.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숙, 199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스트레스”,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1989, “부부관계·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숙, 하정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과 정서적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89-110.
- 배문주, 200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순덕, 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옥, 1994,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일치·불일치한 양육태도와 귀인성향과의 관계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 200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

- 제 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실, 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명희, 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련연구”, 성심여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자율성과 행동적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숙, 1990, 『아동 심리학』, 서울: 민음사.
- 최미향, 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Allen, J. P., Hauser, S. T., Fickholt, C., Bell, K. L., and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535-552.
- Alexander, J. F., 1973, Defensiv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in normal and deviant families. *J.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40, 223-231.
- Baldwin, A. L., Baldwin, C., and Cole, R. E., 1990, Stress-resistant families and stress resistant children.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S., and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ns, H.,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6295, 344-345.

- 
- \_\_\_\_\_,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Cicchetti, D. and Rogosch, F. A., 2002,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6-20.
- Coe, W. C., 1972, *Challengers of Personal Adjustment*. San Francisco: Rinehart Press.
- Galvin, Kathleen M., and Brommel Bernard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2nd ed.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Hart, C. H., DeWolf, D. M., Wozniak, P.,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Lindsey, E. W. & Mize, J., 2001, Interparental agreement, Parent-child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Family Relations*. 50(4), 348-354.
- McCord, J., & Howard, A., 1961, Familial correlates of aggression in non-delinquent male children. *Th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3.
- McElhancy, K. B., and Allen, J. P., 2001,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risk, *Child Development*. Vol. 72 No.1, 220-235.
- Pettit, G. S., and Laird, R. D., 2002,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and earlier child adjustment. In B.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Parental, Parent-Adolescent Consistency of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Kim, Hyun-ju

Son, Jung-hee  
(Chung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parental, parent-adolescent consistency of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The study subjects were 217 adolescents and their 434 parents.

The important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according to the level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varied according to the inter-parental consistency of communication style.: the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test scores were lowest when both their father and mother had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according to the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nsistency of communication style.

**Key words :** Deviant behaviors, Parent education,  
Communication